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났고 있습니다.
 인도불교 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인도돕기)

종무실 폐지 '뜨거운 쟁점'

문광부 직제개편, 종교계 "사회적 기능 축소" 우려

종교지도자협 "오히려 더 강화돼야"

정부 "종교업무 유지... 문제될 것 없다"

문화관광부가 종무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등 종교계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화관광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기획관리실, 종무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문화산업국, 관광국, 체육국, 청소년국 등으로 돼 있는 2실6국 체제에서 문화정책국과 예술국, 종무실을 통합해 문화정책실로 개편하는 2실4국 체제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광부 모철민 종무관은 "2실4국

체제가 될 경우 문화정책실장이 종무를 총괄하게 되고, 종무관이 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며 "8월중 개편안을 확정해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현고스님은 "종교정책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무실

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종교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종교간의 통합이나 사이버 종교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는 독립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7월29일 '종무실 폐지 추진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종무실 폐지는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주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홍보실장 정웅모 신부는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등한시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 등 7개 종단으로 구성된 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조계종 종무원장 법장스님, 이하 종지협)도 7월29일 모임을 갖고 "정부의 종교정책은 국민의 정신적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부처 조직개편과는 별개의 문제며, 오히려 종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문광부 행정인사담당관실 김대현 사무관은 "종무실이 폐지되더라도 종교행정과를 설치해 종교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기존의 2개과가 1개과로 축소·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랄라라, 부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세상~"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영월 적멸보궁 법종사와 백덕산에서 열린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찬불가인 '평평! 롬비니동산'을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사진: 박재완 기자

"북한산도로 공론조사 추진" 파문

불교환경연대 "노대통령 공약 파기 선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를 '공론조사'로 결론짓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7월 2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차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향후 처리방안' 보고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공론조사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말까지 불교계와 협상을 하고, 두 가지 결과를 관장관회의에서 보고해 오는 9월까

지 노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월택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문대골 목사(생명교회), 이정택 교무(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상임대표), 박영신 교수(연세대, 녹색

연합 상임대표)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29일 오전 철학사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산 관동도로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우회노선 결정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안산시에 불교문화산업센터

조계종, 5천평 규모 건물 2동 내년 착공

조계종이 추진 중인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244억원을 들여 경기도 안산시 북동면에 연건평 5천평 규모의 지하 3층 지상 4층짜리 건물 2개동을 짓는다고 7월30일 밝혔다.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는 영산재,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의 무형 문화와 사찰 문양이나 음식문화 등의 유형문화를 현대적 이미지에 맞춰 '상품'으로 개발, 판매하게 된다.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에는 △불교회화· 조각· 음악· 서적 전시 및 판매소가 들어서는 전시시설 △불교음악· 의식 공연을 위한 공연시설 △불교음악 및 회화 연구실 및 세미나실 등의 연구시설 △불교회화· 음악· 공예· 의식· 음식문

화와 사찰 문양이나 음식문화 등의 유형문화를 현대적 이미지에 맞춰 '상품'으로 개발, 판매하게 된다.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에는 △불교회화· 조각· 음악· 서적 전시 및 판매소가 들어서는 전시시설 △불교음악· 의식 공연을 위한 공연시설 △불교음악 및 회화 연구실 및 세미나실 등의 연구시설 △불교회화· 음악· 공예· 의식· 음식문

화· 참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시설 △휴게실, 관리실 등의 기타 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정부에 국비 122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는 이를 심의 중에 있다.
 한명우 기자

'종교와 세계화' 국제회의 300여명, 종교협력 모색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힌두교, 그리스 정교 등 여러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세계화 시대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한 초종교적 대안을 모색했다.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파안대학교에서 열린 '종교와 세계화' 국제회의는 법륜스님(경토회 지도법사), 슬라 시바락사(INEB 고문) 등 2003 참여불교 세계대회 참석자들을 비롯해 300여명의 종교인들이 모여 종교간 연대와 협력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는 △세계화를 바라볼 수 있는 종교와 교육 △세계화와 종교와 언론 △세계화 시대 종교 다양화와 초종교적 관계 등을 주제로 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참여불교 세계대회 차기 대회는 2005년 10월 인도 부다가야에서 개최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0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0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6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서부: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일제 강점시기 피해자들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국적 포기서를 제출할 방침이어서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불자번호사인 최봉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은 "8월 13일 청와대에 국적 포기서를 전달하고 노무

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고 7월 31일 밝혔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국적 포기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광복 48년이나 지났지만 피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급기야 법원을 통해 행정문서공개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서공개'를 명령했지만 외교통상부 등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아직까지 이들은 국적을 포기하는 초 강경수를 두어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할머니들이 오죽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려는지 정부는 코드를 읽어야 한다.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할 바에는 국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진정 국민 참여정부라면 한일협정서 내용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들은 국적을 포기하는 초 강경수를 두어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할머니들이 오죽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려는지 정부는 코드를 읽어야 한다.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할 바에는 국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진정 국민 참여정부라면 한일협정서 내용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기행 코스
 상록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5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이산 인취사
 백련 보급의 원조인 인취사 연 발과 주지 혜민 스님의 '연꽃 법문'

김제 청운사
 연 발 6천여 쌍을 가득 채운 백련 강상 및 연꽃 차시용 및 구매

기행 일시 및 인원
 8월 9일, 16일, 23일
 오전 7시~오후 8시. 선착순 200명

참가비
 4만 5천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여행자 보험금 포함)
 *10명 이상 단체참가시 10% 할인

참가방법
 전화신청 (732-1520)→참가비 입금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군)→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림니다)→좌석배정-당일 오전 6시25분까지 조계사 앞集合

서울대 출신 공학도가 풀어난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본다

- 부시美 대통령의 2004년 대선運은 과연?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 음양오행 이론은 천문학, 의학, 생물학, 환경공학, 심리학, 건축학 등 현대의 모든 학문에 응용될 수 있다.
-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대에 걸쳐 진행되는 대아드라마다.
- 이 책은 10년 12기와 육친(六親)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아 조부모도 쉽게 사주와 만날 수 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어서아는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